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언어와 표상의 문제*

김 성 호**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언어철학

주요어 라이프니츠, 언어, 표상, 보편적 기호법, 인공 언어, 자연 언어

요약문

라이프니츠는 언어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즉 전기에는 보편적 기호법으로 대표되는 인공 언어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한 반면 후기에는 일상적인 자연 언어 중심의 접근 방식을 택한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라이프니츠가 주로 자연 언어를 인공 언어로 환원하는 일에 몰두했으며, 이상적인 인공 언어의 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카시러 이론’이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며 라이프니츠의 의도와 실제 행했던 탐구 작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라이프니츠가 목표했던 바는 특정한 형식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관념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 이런 목표에 충실하여 이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언어를 구상하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탐구했다. 전기에는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들을 단순한 기호로 설정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타당한 추론 규칙을 통하여 규정하려는 방법을 선택한 반면 『지성론』으로 대표되는 후기에는 일상적인 자연 언어를 중심으로 단어와 그것이 지닌 의미 사이의 내부적 관계를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논자는 특히 라이프니츠의 표상 개념을 중심으로 전후기 언어관을 비교함으로써 그의 언어관이 지닌 연속성을 밝히려 했다. 언어에 대한 그의 탐구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언어 체계를 낳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는 이런 탐구를 통하여 그는 현대 분석철학에서 이상 언어와 일상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A-A00029).

** 고려대학교

철학탐구 제35집

언어 중심의 접근법이 지니는 많은 요소들을 예견함으로써 철학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 철학의 영역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1. 머리말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 특히 합리론 계열에 속하는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의 보편성을 자신들의 중요한 철학적 전제로 여겼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보편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등장하는데 그 중 하나로 보편적 언어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쿠투라(Couturat)는 “이성의 능력과 독립성을 깨닫게 된 철학자들은 이전의 전통과 타성이라는 방해물로부터 벗어난 이성을 확보하려 했다. 또한 철학자들은 이성을 통하여 세계에 관한 고대의 지식을 뛰어넘어 무한한 진보의 가능성을 발견하려 했다. 이런 모든 시도는 자연스럽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언어, 즉 일상 언어보다 더욱 논리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런 생각은 모든 학파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드러난다”고¹⁾ 말함으로써 보편적 언어에 대한 근대 철학자들의 관심과 태도를 적절히 요약한다.

이런 보편 언어의 발명에 관심을 보였던 대표적인 철학자가 라이프니츠(Leibniz)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²⁾ 그는 최초의 공식 저술인 『조합의 기법에 관하여』(*On the Art of Combination*)에서부터 보편 언어의 기본 구조를 중심 주제로 삼아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며 뒤이은 다른 저술들에서도 보편 언어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립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그는 이런 언어 체계를 ‘보편적 기호법’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통하여 인간 사고의 기본 개념들을 확립하고 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강력한 희망을 드러낸다. 그는 어떤 개념

1) L. Couturat, *La logique de Leibniz* (Paris: Alcan, 1901), 55-6면.

2) 라이프니츠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보편적 언어 발명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영국 철학자인 달가노(George Dalgarno, 1616-87)와 윌킨스(John Wilkins, 1614-72)를 꼽을 수 있다. 이들 둘과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는 J. Maat, *Philosophical Language in the Seventeenth Century: Dalgarno, Wilkins, Leibniz* (Dordrecht: Kluwer, 2004)참조.

이 지닌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기호로 표시하고, 여러 개념 사이의 관계 또한 기호로 표시하여 타당한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을 구별하려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보편적 기호법을 일종의 인공적인 이상 언어 체계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하지만 언어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관심과 탐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저술인 『신인간지성론』(*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의 3권 ‘말(언어)에 관하여’에서 보편적 기호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언어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인다. 즉 그는 현재 인간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다양한 언어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추적해보면 아담의 언어(Adamic language), 즉 성서의 ‘창세기’에서 아담이 신이 창조한 동물들에 이름을 붙이면서³⁾ 사용했던 언어로 귀결될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라틴어와 독일어, 영어의 여러 단어들을 비교하면서 어원과 형성 과정을 밝히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보편적 기호법이나 이상 언어 등의 개념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 즉 자연 언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며 오직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이렇게 우리는 언어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접근 방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보편적 기호법을 중심으로 한 이상 언어 중심의 접근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아담의 언어를 중심으로 한 일상 언어 중심의 접근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 두 방식 사이의 긴장과 간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이프니츠 철학에 대하여 흔히 제기되는 비판처럼 그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주장을 전개했으므로 그의 체계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작용하여 이상적 인공 언어로부터 일상적인 자연 언어로 향하는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

3) 구약성서, ‘창세기’ 2장 19절.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 계기는 무엇인가?

논자는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라이프니츠의 ‘표상’ 개념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공 언어든 자연 언어든 간에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는 기호나 단어는 어떤 대상을 표상 또는 표현하므로⁴⁾ 기호 및 단어와 대상 사이의 관계로서의 표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두 언어의 본질과 라이프니츠의 의도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공 언어에서 자연 언어에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계기를 발견함으로써 라이프니츠의 언어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의 언어관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최소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논자는 우선 2절과 3절에서 인공 언어와 자연 언어 중심의 접근법과 그것의 특징을 각각 제시한 후, 4절에서는 이 두 접근법을 표상의 개념과 관련하여 고찰하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라이프니츠의 언어관에서 드러나는 일관성과 그의 의도를 밝히는 것으로 이 논문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2. 보편적 기호법과 인공 언어의 기획

앞서 언급했듯이 라이프니츠는 1666년에 쓴 최초의 공식 저술 『조합의 기법에 관하여』(이하 『조합』으로 약칭함)에서부터 ‘보편적 기호법’(characteristica universalis)을⁵⁾ 구성하려는 예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4) 라이프니츠는 ‘우리의 말은 사고와 진리 등을 표상하며, 글로 쓴 기호는 수, 사고, 관념과 개념 등을 표상한다’고 명확히 언급한다. Leibniz, *Philosophical Papers and Letters: A Selection* (ed.) L. E. Loemker, 2nd edition (Dordrecht: Reidel, 1969), 207면.

5) 하지만 『조합』에는 ‘보편적 기호법’이라는 표현 자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1672년 프랑스 학술회장 갈루아(Gallois)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나타난다. G. H. R. Parkinson, *Leibniz: Logical Papers* (Oxford: Clarendon Press, 1966), xvii 면 참조 (이하 이 저술은 Parkinson으로 약칭함). 또한 라이프니츠는 ‘보편적 기호

한다. 그는 자신이 제시하려는 논리학 체계를 두 부분으로, 즉 한편으로는 ‘발명적 논리’ 또는 ‘발견의 논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판단의 논리’ 또는 ‘논리학 중 분석적 부분’으로 나눈다.⁶⁾ 이들 중 전자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등장하는, 환원 불가능한 모든 단순 개념들을 발견하여 이를 원초적 기호 체계로 제시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라이프니츠 자신은 이를 ‘인간 사고에서 등장하는 기본철자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한다.⁷⁾ 반면 후자는 이런 기본철자들을 기초로 삼아 복합개념을 단순개념으로 환원하거나 단순개념들을 복합개념으로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들을 밝히는, 추론적 계산의 부분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라이프니츠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철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배열되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되듯이 인간의 사고 과정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발견하고 이를 결합해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후자와 관련해서는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되는 조합의 원리를 밝힘으로써 인간 사고와 지식, 더 나아가 학문의 구조를 확실히 해명할 수 있으리라는 강력한 희망을 드러낸다. 이런 그의 생각은 데카르트 이후 근대 철학자들이 크게 공감했던 보편수학의 이념, 즉 수학적 방법을 확대하여 모든 학문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기대와도 밀접히 연결된다. 그리고 이후 라이프니츠 자신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 제시한 보편적 기호법의 기본 체계를 이미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⁸⁾

법’을 지칭하면서 ‘characteristica universalis’라는 라틴어 문구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외에도 그는 ‘lingua universalis’, ‘lingua generalis’, ‘characteristica rationalis’, ‘scriptura universalis’, ‘ars characteristica combinatoria’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들 각각의 의미와 상이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H. W. Arndt, “Die Entwicklungsstufen von Leibniz’ Begriff einer Lingua Universalis” in *Das Problem der Sprache*, hg. H.-G. Gadamer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67), 71-2면 참조.

6) Parkinson, 3면.

7) Parkinson, 11면.

이런 생각을 구체화하여 라이프니츠는 『조합』에서 우선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들의 목록을 제시하는데 이 목록에는 모두 27개의 개념이 등장한다. 주로 수학적 개념에서 도출된 듯이 보이는 기본철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점. 2. 공간. 3. 사이. 4. 인접 또는 이어져 있음. 5. 분리 또는 떨어져 있음. 6. 극점 또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 7. 속해 있음. 8. 포함됨. 예를 들면 원의 중심은 원주를 포함하는 원 안에 속해 있다.
9. 부분. 10. 전체. 11. 동일. 12. 차이. 13. 단일. 14. 수. 15. 다수. 예를 들면 2, 3, 4, 5 등등. 16. 거리. 17. 가능. 18. 전칭. 19. 주어져 있음. 20. 변화. 21. 방향. 22. 차원. 23. 길이. 24. 연장성. 25. 깊이.
26. 공통성. 27. 진행 또는 연속됨.⁹⁾

뒤이어 그는 이들을 조합하여 명제를 기호화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분량은 부분들의 수이다’라는 명제를 ‘분량은 9의 14이다’로, ‘간격은 둘 사이의 전체 공간이다’를 ‘간격은 2.3.10이다’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열거한다. 이를 통하여 그는 나름대로 조합의 기법을 선보이려 하지만 조합의 규칙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은 채 두 개의 수를 단지 점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분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킨다. 즉 ‘증가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를 ‘증가는 20.¼이다’로, ‘무한은 가능하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를 ‘무한은 18.19.17보다 ¼이다’ 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조합』에 등장하는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와 이들을 조합하는 방법은 그저 당시 사용된 수학적 개념들을 아무런 체계나 분류도 없이 나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철학적 관점에서는 전보에 사용되는 부호보다 나올 것이 없다’¹⁰⁾ 비판을 받기

8) 이에 관한 더욱 상세한 논의는 논자의 이전 논문 “라이프니츠 논리학의 발전과정”, 『논리와 진리』, 여훈근 외 지음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6), 296-8면 참조.

9) Parkinson, 6-7면.

10) W. Kneale and M. Kneale, *The Development of Logic* (Oxford: Clarendon

도 한다.

하지만 『조합』은 라이프니츠가 겨우 20세의 젊은 나이에 발표한 저술로서 체계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보편적 기호법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방향과 대강의 윤곽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그의 불완전함과 미숙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¹¹⁾ 그럼에도 『조합』에는 이후 그의 발전 방향을 예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개념들을 더 이상 분석 불가능한 원초적 개념들로 분해하여 이를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로 삼는다. 둘째, 각각의 원초적 개념들을 표상 또는 표현하는 데 적합한 기호를 고안한다. 셋째, 이런 기호들을 조합하는 규칙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들은 원초적 개념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와 정확하게 대응된다.¹²⁾

이후 라이프니츠는 16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20여년에 걸쳐 보편적 기호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저술과 소논문들을 발표하여 자신의 방법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이어나간다. 특히 그는 명제의 주어와 술어에 등장하는 여러 개념들을 숫자로 표현한 후 논리적 추론을 수학적 계산으로 환원함으로써 보편적 기호법이 지닌 인공 언어적인 특성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 등장하는 환위법과 환질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호화를 시도한다. 예를 들면 ‘모든 현명한 사람은 신앙심이 깊다’라는 전칭 긍정 명제가 참이라

Press, 1962), 324면.

- 11) 라이프니츠 자신도 1678-9년 사이에 쓴 한 소논문에서 자신이 『조합』에서 제시한 보편적 기호법이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학을 막 마친, 아직 진정한 학문의 세계를 접하지 못한 20세의 젊은이가 전개한 미숙한 구상이었다고 자평한다. Leibniz, *Philosophical Essays*, eds. R. Ariew and D. Garber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 1989), 6면 참조 (이하 이 저술은 Ariew and Garber로 약칭함).
- 12) 이런 세 가지 지적에 관해서는 D. Rutherford, “Philosophy and Language in Leibniz”,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ibniz*, ed. N. Jolley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 1995), 230면 참조.

고 가정된 후 이 명제의 주어 ‘모든 현명한 사람’을 ‘+70 -33’이라는 숫자 또는 ‘+cdh -ef’라는 문자로 표현하고, 술어 ‘신앙심이 깊다’를 ‘+10 -3’이라는 숫자 또는 ‘+cd -e’라는 문자로 표현한다. 라이프니츠는 이를 활용하여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중 약간은 현명하지 않다’는 명제가 거짓임을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³⁾ 또한 『보편적 논리 계산의 실례』(*A Specimen of the Universal Calculus*)라는 제목의 저술에서는 숫자를 배제하고 오직 문자만을 사용하여 ‘모든 이성적 동물은 동물이다’, ‘모든 이성적 동물은 이성적이다’를 ‘ab는 a이다’, ‘ab는 b이다’로 기호화하려고 시도하며 이를 통하여 ‘그 자체만으로 참이 되는’ 명제들의 구조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더욱 확장하여 현대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원리를, 예를 들면 동일성의 원리, 단순화의 원리, 이중부정의 원리 등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한다.¹⁴⁾

이런 논의를 통하여 라이프니츠는 보편적 기호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 표명하며 이를 완성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여전히 모든 명제가 ‘주어-술어’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고전 논리학의 전제를 넘어서지 못하며 따라서 어떤 새로운 논리학의 기초를 제공했다기보다는 고전 논리학의 여러 기법들을 나름대로 기호화하여 제시한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그의 보편적 기호법이 인공 언어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간에 보편적 기호법을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모든 것과의 조합을 통하여 명제를 구성하는 제일명사들(the

13) Parkinson, 26-30면 참조.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계산 방법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숫자 자체를 부여하면서도 많은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그리 큰 설득력을 얻지는 못한 듯하다.

14) Parkinson, 33-7면 참조.

first term)은 기호에 의해서 표시되는데 이런 기호들은 일종의 철자에 해당한다. ... 만일 이들이 올바르게 정교하게 확립된다면 이런 보편적 표기법은 공통의 언어만큼이나 쉽게 이해될 것이며, 어떤 사전도 필요 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모든 것에 대한 근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할 것이다. 이런 표기법은 전체적으로 기하학적 도형과 같은 일종의 기호로 - 고대 이집트인이나 현재 중국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 구성될 것이다. 하지만 이집트인이나 중국인의 기호는 철자로, 즉 글자로 환원될 수 없다. 이들이 사용하는 기호는 너무나 복잡하여 엄청난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내가 제시하려는 방법과는 상반되는 요소이다.¹⁵⁾

이 인용문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라이프니츠는 원초적 명사 또는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들을 전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즉 이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호를 고안함으로써 인공 언어를 구상하려 한다. 또한 그는 이 기호가 가능한 한 분명하게 표현된 단순한 것이어야 하며 기호들 사이의 조합 규칙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가 이런 기호법에 이르게 된다면 기본철자에 해당하는 단순 관념들은 바로 하나의 기호로 표현하고, 복합 관념들은 명확한 규칙에 따라 조합된 기호로 표현함으로써 보편적인 서술과 의미 전달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기호법이 '추론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보편적 언어의 발명에 큰 관심을 쏟았던 달가노와 월킨스는 바로 이런 면을 소홀히 다루었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언어 또는 서술법은 오직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갈라진 사람들 사이의 편리한 의사소통만을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보편적 기호법은 인간 정신의 도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즉 발견과 기억 그리고 판단의 도구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¹⁶⁾

15) Parkinson, 11면.

16) Rutherford, 앞의 논문, 230-1면에서 재인용.

이런 관점에서 보면 라이프니츠는 인간의 개념적 사고를 여실히 반영하는 기호 체계의 수립을 목표 삼으며, 타당한 추론에서 사용되는 관념들 사이의 관계와 질서를 드러내는 기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라이프니츠는 보편적 기호법이라는 일종의 인공 언어를 구성함으로써 타당한 추론의 형식적 구조뿐만 아니라 이런 추론에 동원되는 관념의 내용까지도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며, 이런 기호법의 구상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발명 중 하나라고 여긴다. 1670년대 중후반에 여러 학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나의 기호법을 사용하면 누구든지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말하고 사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성의 위대한 도구인 나의 기호법은 현미경이 우리의 시각에 부여하는 것보다 더욱 큰 힘을 우리의 정신에 부여하여 윤리학과 형이상학에서도 수학과 같은 수준의 확실성을 지니는 추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¹⁷⁾ 그가 이런 기호법을 실제로 완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이 뒤따르지만 최소한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20여년에 걸쳐 인공 언어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기호법의 구성에 몰두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3. 자연 언어에로의 전회

라이프니츠는 1678-9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보편적 기호법 서문』(*Preface to a Universal Characteristics*)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¹⁸⁾ 사람들이 본유적 능력을 사용하여 보편적 언어라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숫자와 기호를 통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몇몇 학자들이 아담의 언어라고 표현하는, 특히 뱀에

17) 같은 논문, 231-2면 참조.

18) Ariew and Garber, 5-10면에 수록.

(Jacob Böhme, 1575-1624)가 자연 언어(die Natursprache)라고 불렀던 것을 통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구상해 온 보편적 기호법은 전자에 속하는 방법으로서 당시의 어느 누구보다 이 방법의 완성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자랑스럽게 덧붙인다. 하지만 라이프니츠가 1704년 완성한, 그의 성숙기 철학을 대표하는 가장 방대한 저술 『신인간 지성론』(이하 『지성론』으로 약칭)의¹⁹⁾ 3권 ‘말(언어)에 관하여’에서 핵심 주제는 더 이상 보편적 기호법을 중심으로 한 인공 언어가 아니라 아담의 언어를 중심으로 한 자연 언어로 전환된다. 이런 전환의 이유를 해명하기에 앞서 『지성론』에 등장하는 언어관을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의 공통적 근원으로 작용하는 어떤 궁극적인 언어, 이른바 아담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17세기 철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신념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런 신념의 확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앞서 라이프니츠가 지적한 대로 독일 신비주의 철학자 뵘메였다. 뵘메는 이런 근원적 언어를 자연 언어라고 부르면서 이는 본유적이고, 보편적이고, 자연적이고, 임의적이 아니고, 정확하고, 포괄적이고, 동적이고 따라서 강력한 언어라고 생각했다.²⁰⁾ 그는 이런 자연 언어를 비유적으로 아담의 언어라고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전제한다. 첫째,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묘사되듯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사용한 언어가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언어이며 다른 모든 언어들은 이로부터 파생되었다. 둘째, 아담의 언어는 자연 언어였다. 셋째, 아담은 이런 자연 언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19)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 tr. and ed. P. Remnant and J. Bennett (Cambridge: Cambridge UP, 1996). 『지성론』을 인용할 경우 이 영역본의 양측 여백에 표시된 면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20) M. Losonsky, “Leibniz’s Adamic Language of Thought”,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30 (1992), 523-3면. 이하 뵘메의 자연 언어와 아담의 언어에 대한 설명 또한 이 논문에 힘입은 바 크다.

뵘페 이후 17세기 철학자들은 이런 전제를 수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언어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일부 학자들은 아담의 언어가 예를 들면 고대 히브리어에 흔적을 남겼으리라고 추측하면서 고대 언어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진행한 반면 다른 학자들은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자연 언어를 고찰하여 이로부터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하려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런 두 가지 방식에 비추어보면 라이프니츠는 분명히 후자의 방식을 택하여 자연 언어에 접근하는 듯이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라이프니츠 철학에 대한 연구에 비추어보면 자연 언어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은 보편적 기호법으로 대표되는 인공 언어 중심의 접근 방식에 비하여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한 듯하다. 보편적 기호법은 현대 기호 논리학의 등장을 예견한, 근대철학의 대표적 성과로 자주 논의되는 반면 『지성론』 3권에 등장하는 자연 언어에 관한 논의는 철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역사적 또는 어원학적 접근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성론』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라이프니츠는 인간 언어의 근원, 단어가 지니는 의미의 자연적 기초와 규약적 기초, 자연 언어와 표상 사이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철학적으로 중요한 많은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왜 그의 관심이 인공 언어에서 자연 언어로 전환되었는지를 해명하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다양한 언어의 공통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어떤 근원적 언어가 존재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아담주의에 동의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아담이 사용했던 언어가 그대로 현재의 언어에 이어지므로 현재의 언어에서,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는 단호히 거부한다.²¹⁾ 그 대신 그는 우리의 언어가 어떤 공통적인 근거에서 출발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여러 곳으로 이주하여 서로 분리된 삶을 살게 되면서 각 지역의 기후와 환경을 받

21) 『지성론』, 281면. 또한 Losonsky, 앞의 논문, 530면 참조.

영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하여 그는 뵈메가 생각했던 아담의 언어에서 신학적 색채를 배제하고 사실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특히 그는 자연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어 어떻게 의미를 얻게 되는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언어관을 점차 드러낸다.

『지성론』 3권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한 대목에서²²⁾ 라이프니츠는 단어의 의미가 인간에 의해서 임의로, 관행에 따라 부여된다는 로크(Locke)의 견해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단어의 근원에는 무언가 자연적인 요소가 - 즉 대상과 발성기관의 소리 및 운동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무언가가 존재하므로”, “단어의 의미는 결코 임의로, 우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규정된다. 우리의 무지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계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이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라이프니츠는 다소 소박한, 상식적인 수준의 대답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원래 단순한 고향이나 외침 같은 감탄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음성이 점차 발전하여 언어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대상이나 행위의 명칭은 그것이 내는 소리 또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보이는 음성적 반응에서 유래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단어의 의미가 규정되었다고 주장한다.²³⁾

이어서 라이프니츠는 언어의 근원 및 단어가 지닌 의미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언어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는 언어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 하나는 음성이나 부호를 사용하여 우리의 내부적 개념을 드러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다

22) 『지성론』, 282면 이하 참조.

23) 라이프니츠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로부터 라틴어 *coaxare*, 독일어 *quaken* 등이 유래했으며 영어 *quickly* 또한 이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구체적인 예를 든다. 『지성론』, 282면.

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추론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²⁴⁾ 특히 후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언어는 추상적 사고의 수단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기호로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무언가를 추론할 때 매번 다시 정의를 내리는 불편함을 덜어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라이프니츠가 보편적 기호법과 같은 인공 언어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자연 언어만으로도 이런 두 가지 역할의 수행이, 특히 내부적 추론의 진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즉 추론에 사용되는 개념을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 같은 것으로 단순화하거나 환원할 필요 없이 자연 언어 자체만으로도 개념을 표상하고 추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그가 자연 언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를 명사(名辭, term)와 불변화사(particle)로 분류하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서 명사는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그것에 대한 관념을 지시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의미하는 반면 불변화사는 접속사, 전치사, 몇몇 부사를 의미한다. 그는 앞서 보편적 기호법을 형성하는 두 요소를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와 이들 사이의 추론 규칙으로 분류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철저히 자연 언어를 중심으로 명사와 불변화사 사이의 구별을 제시함으로써 이전의 분류를 대신한다. 특히 그는 불변화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불변화사는 우리가 형성하는 명제의 구성 요소들 또는 그들에 대한 관념을 서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념을 통해서 형성된 관념의 여러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의 결합은 전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동사의 긍정과 부정은 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접속사는 다양한 긍정과 부정 사이의 연결 관계를 규정한다.²⁵⁾

24) 『지성론』, 287면 참조.

25) 『지성론』, 330면.

자연 언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구별에 따르면 명사는 명제의 주어나 술어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어나 술어의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불변화사는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와 술어를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지적한 언어의 역할, 특히 우리의 내부적 개념을 드러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역할과 관련해서 명사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를 전달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반면 불변화사는 우리의 사고들 사이의 관계와 질서를 규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라이프니츠는 성숙기 이후의 사상을 드러내는 『지성론』을 통해서도 주로 자연 언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자연 언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내부적 추론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드러낸다. 『지성론』에서는 보편적 기호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며,²⁶⁾ 자연 언어를 인공 언어로 환원할 필요성이나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 인공 언어 중심의 접근 방식과 후기 자연 언어 중심의 접근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다음 절에서 다루려 한다.

4. 두 언어관과 표상의 개념

라이프니츠의 전기와 후기 언어관 사이에 근본적이고 서로 조화 불가능한 차이가 명백히 존재하며, 그가 진정으로 제시하려 했던 비는 보편적 기호법을 중심으로 한 인공 언어의 체계였다는 주장을 강력히 전개한 인물은 널리 알려진 현대 철학자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였으

26) 『지성론』에서는 보편적 기호법 대신 보편적 상징의 사용(universal symbolism)에 관한 언급이 잠시 등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익히고 사용한다면 무척 유용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 언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398면 참조.

므로 이런 주장은 이른바 ‘카시러 이론’(Cassirer thesis)으로 불린다.²⁷⁾ 카시러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언어를 순전히 인식의 수단 또는 논리적 분석의 도구로 여겼으며 따라서 실제의 단어와 음성으로 이루어진 자연 언어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카시러는 라이프니츠가 자연 언어에서 사용되는 글자나 단어와 보편적 기호법에서 등장하는 기호를 전혀 다른 수준의 것으로 구별했으며, 라이프니츠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자를 후자로 대체함으로써 더욱 엄밀하게 사고 및 추론을 진행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이런 ‘카시러 이론’을 반박하고 라이프니츠의 전후기 언어관에서 어떤 공통점과 연속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보인다.²⁸⁾ 이들은 대체로 라이프니츠가 전기와 후기에 언어에 대한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인다는 점에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라이프니츠 자신이 인공 언어와 자연 언어를 서로 분리하여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았으며, 이런 구별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 언어철학의 도식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라이프니츠에게 소급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본다. 또한 이들은 라이프니츠가 초기의 『조합』에서 후기의 『지성론』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목표, 즉 사고 및 추론의 명료화와 명확한 의사소통 및 전달 가능성을 추구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그는 초기의 소논문에서²⁹⁾ 라틴어의 격이나 수, 성, 시제, 인칭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오

27) Rutherford, 앞의 논문, 248면. 또한 A. Heinekamp, “Natürliche Sprache und Allgemeine Charakteristik bei Leibniz”, *Studia Leibnitiana Supplementa* 15 (1975), 267-8면 참조. 이들의 인용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의 언어관에 대한 ‘카시러의 이론’은 E. Cassirer,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Vol. I (New Haven: Yale Uni. Press, 1953), 130-2면에 등장한다.

28) 앞서 인용한 Rutherford와 Heinekamp의 논문 모두 이런 시도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또한 M. Dascal, *Leibniz: Language, Signs and Thought : A Collection of Essays* (Amsterdam: John Benjamins, 1987)에 수록된 여러 논문도 이런 시도를 옹호한다.

29) Parkinson, 13면 참조.

히려 혼동을 불러일으키므로 이들을 제거한 ‘이성적’ 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태도를 한 번도 바꾸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며 이런 문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언어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성론』에서 라이프니츠가 주로 자연 언어에 관심을 보인 까닭도 위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된다. 즉 초기에 구상했던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를 확정하려는 작업이 생각만큼 쉽게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³⁰⁾ 라이프니츠는 이런 작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자연 언어를 중심으로 ‘이성적 문법’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논자는 라이프니츠가 언어에 접근하는 태도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표상 또는 표현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공 언어든 자연 언어든 간에 언어에서 사용되는 글자나 기호는 어떤 대상이나 우리의 관념을 표상하기 위한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요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표상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라이프니츠의 관심이 인공 언어에서 자연 언어로 전환된 계기를 추적하고 또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바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이프니츠는 우선 무척 다양한 것들이 언어에서 기호 또는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런 기호에는 단어, 글자, 수학이나 화학, 천문학의 부호들, 중국어나 상형문자, 음표, 암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언어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대상이나 관념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상하여 이들에 대한 우리의 추론에 도움이 되는 기호만이 채택되어 사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수학의 부호를

30) 라이프니츠는 자신이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를 확립하는 데 실패하고 따라서 보편적 기호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하노버 공작이 부과한 지나친 업무 때문이라는 일종의 자기변명을 늘어놓는데 이런 대목에서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의 일면이 드러나는 듯하다. Rutherford, 앞의 논문, 240면 참조.

들 수 있다.

산술에서 수를 표상하거나 기하학에서 선을 표상하는 부호처럼 우리의 모든 사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상하기에 적절한 기호나 상징을 발견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추론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산술과 기하학에서처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추론에 의존하는 모든 탐구는 이런 기호들의 위치를 바꾸어 놓거나 이들 사이에 일종의 계산을 시도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호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 사이를 연결하는 표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는 어떤 다른 사고 대상을 표상하는 모든 것을 기호라고 부른다. 그리고 표상한다는 것은 기호가 다른 무언가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그것과 대응하여 그것에 대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대상과 기호가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대상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명확한 규칙 또는 관계에 따라서 기호에 대응되기만 하면 충분하다.³¹⁾

1670년대 후반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소논문에 등장하는 이 두 인용문에서 라이프니츠는 대상 또는 관념과 기호 사이의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표상으로 여기며 또한 적절한 기호는 가능하면 단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공 언어 중심의 접근을 강력히 암시하는 듯이 보인다. 마치 수학에서 모든 합성수가 소수(prime number)의 곱으로 표시되듯이 보편적 기호법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기본철자만 확보되면 모든 복합 관념들을 기본철자의 결합으로 표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합의 형식적 규칙이 삼단논법으로 대표되는 타당한 추론의 정식으로 제시될 수 있

31) 이 두 인용문은 Rutherford, 앞의 논문, 234면에서 재인용.

을 것이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이런 시도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들을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점이다.³²⁾ 이외에도 더욱 궁극적으로 과연 기본철자를 표현하는 기호들이 그 자체로 실제 대상이나 관념을 표상하는지 아니면 기호들이 대상 및 관념을 순전히 규약을 통해 표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결국 위의 인용문에서 등장한 대응의 관계가 엄밀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라이프니츠 자신도 이런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며 이 때문에 인공 언어 체계의 구상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자연 언어 쪽으로 관심을 돌린 듯하다.

앞서 지적한 대로 라이프니츠는 자연 언어에서 단어의 의미가 인간에 의해서 임의로 부여된다는 로크의 견해에 반대하여 단어와 그것이 지시하는 바 사이에는 자연적인 어떤 밀접한 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한다. 즉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과 발성기관의 소리 및 운동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자연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자연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규약 또는 정의에 의해서 의미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인공 언어의 기호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얻게 되며 따라서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표상하게 된다. 한 학자의 매우 적절한 표현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 자연 언어는 대상을 직접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의식에 반영된 한에서의 실재를 표상한다.”³³⁾ 즉 자연 언어는 대상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대상의 본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대상 자체의 본성보다는 오히려 인간 정신의 본성을 반영하는 자

32) 이런 점과 실제로 수학에서 소수의 개수가 무한하다는 사실은 묘한 대비를 이루는 듯이 보인다.

33) Heinekamp, 앞의 논문, 294면.

언어 언어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내부적 사고와 추론의 진행이라는 언어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임의적인 인공 언어나 기호의 도입은 어찌보면 불필요한 여분의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보편적 기호법에서 자연 언어에로 관심을 전환한 듯이 보인다.

라이프니츠의 언어관과 관련하여 표상 개념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위에서 언급한 관심의 전환을 해명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표상 개념에 대하여 라이프니츠가 직접 언급한 바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³⁴⁾ 그의 표상 개념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려면 표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관념, 지각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그의 인식론 전반에 관한 조명이 필요한데³⁵⁾ 이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논자는 라이프니츠의 전후기 언어관을 비교하면서 보편적 기호법으로 대표되는 인공 언어에서 일상 언어를 중심으로 한 자연 언어에로의 전환이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결국 언어 체계에서 사용되는 기호 및 단어와 그것이 지니는 의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표상 또는 표현의 개념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며 또한 언어관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라이프니츠가 주로 자연 언어를 인공 언어로 환원

34) 많은 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Rutherford, 앞의 논문, 234면 참조

35) 이런 주제를 적절히 다룬 최근의, 우리말로 출판된 연구로는 박제철,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특히 3장 참조

하는 일에 몰두했으며, 이상적인 인공 언어의 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카시러 이론’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다. 라이프니츠가 목표했던 바는 특정한 형식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관념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 이런 목표에 충실하여 이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언어를 구상하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탐구했다. 전기에는 인간 사고의 기본철자들을 단순한 기호로 설정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타당한 추론 규칙을 통하여 규정하려는 방법을 선택한 반면 『지성론』으로 대표되는 후기에는 일상적인 자연 언어를 중심으로 단어와 그것이 지닌 의미 사이의 내부적 관계를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탐구를 통하여 그는 현대 분석철학에서 이상 언어와 일상 언어 중심의 접근법이 지니는 많은 요소들을 예견함으로써 철학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 철학의 영역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라이프니츠에 대하여 자주 그가 무척이나 다양한 창조적 생각을 전개했지만 이를 실현하여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은 별로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사정은 언어 체계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보편적 기호법이라는 인공 언어를 실제로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자연 언어에 대한 획기적인 이론이나 해석을 완성하지도 못한 듯하다. 하지만 이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마지막 성과까지 이끌어내고 이를 확인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쩌면 지나치게 천재적이었던 라이프니츠에게 주어진 필연적 한계인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일차자료 - 라이프니츠의 원전

- Leibniz: Logical Papers*, ed. G. H. R. Parkinson (Oxford: Clarendon Press, 1966).
-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 tr. and ed. P. Remnant and J. Bennett (Cambridge: Cambridge UP, 1996).
- Philosophical Essays*, eds. R. Ariew and D. Garber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 1989).
- Philosophical Papers and Letters: A Selection*, ed. L. E. Loemker, 2nd edition (Dordrecht: Reidel, 1969).

2. 이차자료

- 김성호, “라이프니츠 논리학의 발전과정”, 『논리와 진리』, 여훈근 외 지음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6).
- 박제철,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 Arndt, H. W., “Die Entwicklungsstufen von Leibniz’ Begriff einer Lingua Universalis” in *Das Problem der Sprache*, hg. H.-G. Gadamer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67).
- Couturat, L., *La logique de Leibniz* (Paris: Alcan, 1901).
- Dascal, M., *Leibniz: Language, Signs and Thought : A Collection of Essays* (Amsterdam: John Benjamins, 1987).
- Heinekamp, A., “Natürliche Sprache und Allgemeine Charakteristik bei Leibniz”, *Studia Leibnitiana Supplementa* 15 (1975).
- Kneale, W. and Kneale, M., *The Development of Logic* (Oxford: Clarendon Press, 1962).
- Losonsky, M., “Leibniz’s Adamic Language of Thought”,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30 (1992).

Maat, J., *Philosophical Language in the Seventeenth Century: Dalgarno, Wilkins, Leibniz* (Dordrecht: Kluwer, 2004).

Rutherford, D., “Philosophy and Language in Leibniz”,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ibniz*, ed. N. Jolley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 1995).

The Problem of Language and Representation in Leibniz's Philosophy

Kim, Seong-Ho (Korea Univ.)

In Leibniz's philosophy we can find two different approaches to language. In early days he pursued to construct a ideal, artificial language, namely 'universal characteristics'. But in his mature philosophical period his interest concentrated on the ordinary natural language. Then,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se two approaches and what is the reason of this shift?

According to 'Cassirer thesis' Leibniz's ultimate goal was the construction of an ideal, universal system of language and his discussions about natural languages were superfluous. But recent authors strongly opposed 'Cassirer thesis' and took pains to stress the continuity and consistency between Leibniz's accounts of artificial and natural language. The best evidence for the continuity of his view of language is the fact that he draws no definitive line between two languages. His ultimate goal was not a certain system of language, but an ideal instrument for our inference and communication. Accordingly in his view of language the relation of representation, which unites a character and what it signifies, plays a crucial role. But regrettably Leibniz left no sufficient accounts about linguistic representation.

Key words: Leibniz, Representation, Universal Characteristic, Ideal Language, Natural Language

철학탐구 제35집

김성호 e-mail: kim-seongho@hanmail.net

투 고 일	2014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4년 05월 03일
게재확정	2014년 05월 19일